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착공
부지조성 마무리...**

인천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공사가 지난 5월 23일 착공, 3년 7개월간의 공사에 들어갔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해안에서 15km떨어진 영종도와 용유도사이의 바다 1천7백여만평을 매워 건설하는 것으로 1단계는 오는 99년까지 시행되며 2단계는 항공수요와 재원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3백55만평의 부지에 활주로 2개(1개는 부지만 조성), 제1여객터미널, 6-8차선 신공항전용 고속도로(402km), 전용철도 용지매입, 66만평규모의 배후지원 단지 등이 건설된다.

2단계사업은 최종적으로 1천 4백 35만평의 부지에 활주로4개, 여객터미널 2동, 전용고속도로 6차선 구간 8차선확장, 57.3km 복선전용철도 주

변지역 개발과 연계한 배후지원단지 건설 등이 예정되어 있다.

1단계공사가 끝나면 신공항은 연간기준으로 운항 17만회 여객 2천7백만명, 화물 1백70만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2단계 공사가 끝나면 운항 53만회, 여객 1억명, 화물 7백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공정진도는 4월말 17.9%에 이르는데 용지보상은 74.1%까지 진척되었으며 설계공정은 30.7%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32건의 설계는 이미 완료되었고 35건은 진행중이다.

**대한항공, 3년연속 A300-600
최우수 운항상 수상**

대한항공은 세계 3대 항공기 제작회사의 하나인 에어버스 인더스트리로부터 'A300-600 최우수 운항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5월2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작년 운항평가에서 99.8%의 운항 정시율과 효율적인 항공기 운영 등으로 이 회사 항공기를 운항하는 22개의 유수 항공사 중 1위를 차지, 6월17일 바로셀로나에서 수상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으로 대한항공은 93, 94년에 이어 3년 연속 A300-600기종 최우수 운항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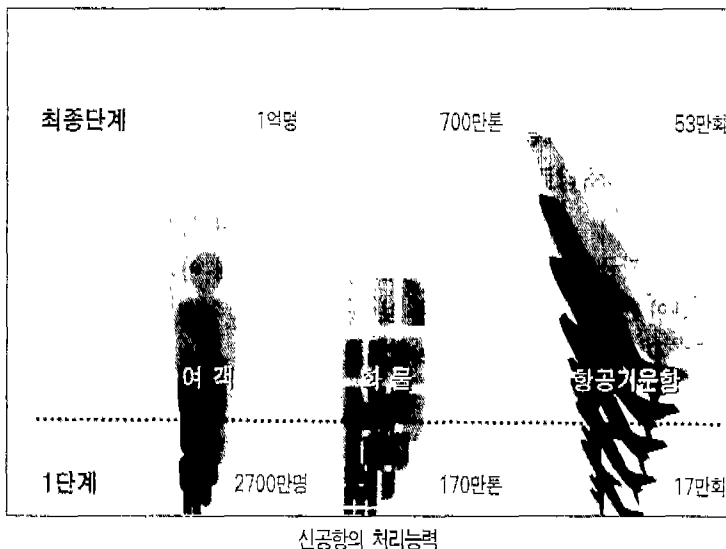
에어버스는 매년 자사가 제작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각 항공사의 운항 정시율을 포함한 항공기 운영현황을 종합 평가하고 있다.

**국내선 항공 지연결항배상
강화 최고 30%까지**

항공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내선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금까지는 운임을 환불해주거나 대체편만 제공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운항지연의 경우 지연시간에 따라 항공료의 20-30%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 수하물 파손에 대한 배상도 현재 일률적으로 1인당 미화 3백달러이내에서 배상하던 것을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로 구분해 위탁수하물은 kg당 미화 20달러씩, 휴대수하물은 1인당 미화 3백달러 범위에서 각각 배상토록 했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국내선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국내선 항공기가 지연됐을 경우 대체편 제공



시간이 2-4시간 이내일 경우 항공 요금의 20%, 4-12시간일 때는 항공 요금의 30%를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물어줘야 한다.

항공사 귀책사유로 항공편이 결항됐을 때는 지금까지 운임만 환불해줬으나 앞으로는 운임환불은 물론 별도의 해당구간 항공권이나 교환권을 제공하도록 배상내용이 크게 강화됐다.

청주공항 85%진척 내년초 개항 무난

충북 청원군 북일면 입상리일대에 중부권 최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오는 97년초 개항을 앞두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은 현재 전체공정 85%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여객터미널 내부시설과 유도도로 및 계류장의 표층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사업비 7백51억원이 투입되는 청주국제공항은 개항초기 제주 부산노선과 일본 태국 등 동남아노선을 연간 19만6천회의 항공기 운항횟수와 2백44만명의 여객을 실어나를 계획이다.

원도시건축 조진권감리단장은 "지금과 같은 공정이려면 오는 10월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시운전을 거쳐 내년초 개항이 가능하다"며 "안전성에 최대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새 항공 관제시스템 시동

유럽 항공기들이 시험운용할 새로운 위성관제시스템이 운항시간 단축과 연료소비 감소는 물론 안전성 역시 크게 높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 방어감시(ADS)로 불리는 이 시스템에 대한 시험은 영국 남부 본머스과 프랑스 남부 툴루즈 등 2개 지상기지에서 수행된다. 시험에 참여하는 브리티시항공(BA),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 루프트한자(독일) 등의 항공기들은 운항중 정확한 속도·위치·예정항로를 인마셋 위성들을 통해 지상으로 알릴 수 있는 특수장비를 장착하게 된다.

이번 시험을 이끌고 있는 영국 민간항공국의 조너선 니콜슨 대변인은 "기존 시스템으로는 항공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운항대수를 제한해야 하지만 새 시스템은 안전간격을 48km로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새 시스템은 항공기들이 레이더 추적범위 밖의 사막이나 바다 위를 날다 레이더망에서 사라지더라도 위치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런던에서 미국 플로리다로 향하는 항공기들은 이륙후 3백20km 떨어진 대서양 상공을 비행할 때까지는 레이더로 추적되며 이후 각 항공기는 안전을 위해 96km의 간격을 두게 된다.

미·영 최고 항공사들, 제휴방안 논의

미국과 유럽의 최고 항공사들인 아메리칸 에어라인(AA)과 브리티시 에어웨이(BA)가 제휴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서양횡단 서비스를 포함한 세계적인 항공로 구축을 위한 계획이 금명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관리들은 그러나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으며 브리티시 에어웨이의 대변인은 "그런 추측성 이야기에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양사 회담에 근접한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양사가 논의 중인 제휴관계는 단순한 코드 공유 협정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협정에는 컴퓨터 예약시스템을 연결, 상대편 항공기에 승객들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 소식통은 또 양사간 협상은 특정노선에서 수익을 공유하는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